



SECOND INFANTRY DIVISION

Public Affairs Office at Camp Red Cloud



Phone DSN (315) 732-8899
Local 0505-732-8899
Fax: 0505-732-8885

Email: joseph.e.scrocca.mil@mail.mil
Web: <http://www.2id.korea.army.mil>

PRESS RELEASE

Media Advisory 20121026-01

January 7, 2013

2nd Infantry Division celebrates 95 years of service

미 2사단 창군 95 주년을 기념하다



Second Infantry Division and Republic of Korea Army Soldiers participate in a combined live-fire event on Rodriguez Multi-purpose Digital Live-fire Range Complex in Pocheon, south Korea, in 2011.

2011 년 미 제 2 보병사단과 한국군 장병들이 대한민국 포천시 소재 로드리게즈 다목적 디지털 실사격 훈련장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The 2nd Infantry Division celebrated its 95th birthday Friday in Korea, where it has spent the majority of its service since the Korean War, deterring aggression on the world's most heavily fortified border.

미 제 2 보병사단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전선에서 위협을 제거하면서 한국전 이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한국에서 이번 주 금요일 창군 제 95 주년을 맞이합니다.

The Warrior Division was activated Oct. 26, 1917, in Bourmont, France, during World War I, making it the first U.S. Army division founded on foreign soil. It is also the only division in U.S. military history to be commanded by not one, but two, Marine Corps generals, to include Marine Maj. Gen. John A. Lejeune, affectionately known as “The Old Indian.”

본 전사사단은 1917 년 10 월 26 일 제 1 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 중 처음으로 외국 프랑스 버몬트에서 창군 되었습니다. 또한 미 육군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도 아닌 두 명의 해병대 장군이 (이들 중 “늙은 인디언”이라고 알려진 존 A. 르준 소장 포함) 지휘를 했던 사단입니다.

As one of the most decorated divisions in the Army, the 2nd ID has more than 20 campaign participations streamers to its credit from five different wars and honors 38 Medal of Honor recipients -- 14 from World War I, six from World War II, and 18 from the Korean War.

미 육군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받은 사단 중 하나로써, 미 2 사단은 다섯 차례 각기 다른 전쟁에서 20 여 차례 이상 전투에 참여한 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14 개 그리고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6 개, 한국전에서 18 개, 총 38 개의 명예훈장 수여자를 배출하였습니다.

During World War I, the division won hard fought victories at Soissons and Mont Blanc, for which it was awarded the French Fourragère in the colors of the Croix de Guerre. The Indianhead Division also participated in the Meuse-Argonne offensive which spelled the end of any German hope for victory. Having fought in every major U.S. engagement, the Indianhead Division emerged from World War I as the most decorated American Division.

제 1 차 세계대전 중, 사단은 무궁 십자훈장기 내 프랑스 프아제를 수여받은 수아송과 몽블랑에서 아주 힘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디언헤드 사단은 독일의 승리에 대한 기대의 끝을 알리는 뫼즈-아르곤네 공격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참전에서 싸우면서 인디언헤드 사단은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사단중 가장 많은 휘장을 수여받은 사단이 되었습니다.

In 1944, in the onset of World War II, the division landed on Omaha Beach, France. Their second battles against the Nazi allies led them to win their fights in France, Belgium, Czechoslovakia and Germany.

1944 년 제 2 차 세계대전에 사단은 프랑스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였습니다. 나치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두번째 전쟁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독일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Landing in Pusan, South Korea, in July 1950, the 2nd Inf. Div. was the first unit to travel directly from the U.S. to join the Korean War. The Indianhead Soldiers were the first to enter Pyongyang and fought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troops valiantly at the Naktong River Line, Kunu-ri, Chipyeong-ni, Bloody Ridge, Iron Triangle, Pork Chop Hill, Baldy Hill and Heartbreak Ridge. After four years of fighting, the division left Korea in August of 1954.

1950 년 7 월 대한민국 부산에 도착한 미 2 사단은미 본토에서 한국전에 최초로 참전하게 된 부대였습니다. 인디언헤드 장병들은 평양에 제일 처음 진입하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을 맞이하여 낙동강 전선과 군우리, 지평리, 피의 능선, 철의 삼각, 폭찹 힐, 불모 고지,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4 년간의 전투 후, 사단은 1954 년 8 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In July 1965, 2ID return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s now the last remaining permanently forward-stationed division in the U.S. Army, and dominate armored land force in the Asian Pacific Region. The division stands should-to-shoulder with its Republic of Korea Army partners to deter aggression and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deterrence fail, “Fight Tonight” in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1965 년 7 월, 미 2 사단은 한반도로 되돌아왔고 미 육군에서 마지막으로 영구적 전진 배치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세한 지상군을 갖춘 사단으로 남아있다. 사단은 대한민국 육군과 어깨를 나란히 위협을 잠재우고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전쟁억제가 실패하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오늘 밤 싸운다”란 각오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ince its return to Korea, the division has continued to evolve to meet the needs of an Army at war. In August 2004, the 2nd Brigade Combat Team deployed to Iraq where it worked side-by-si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my; just as it had while stationed in Korea. This deployment was unique in that it was the first operational deployment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2nd BCT fought in the Fallujah offensive and helped provide Iraqis the opportunity to vote in the historic 2005 election before returning to its new home in Fort Lewis, Wash., where earlier this month it became part of the re-activated 7th Infantry Division.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사단은 전쟁에서 육군의 필요성에 맞게 계속 진화해왔다. 2004 년 8 월에는, 한국에 주둔하였던 제 2 전투여단이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근무하게 될 이라크에 파병되었다. 본 파병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파병되는 독특한 것이었다. 이번 달 초 새로 재구성된 7 사단의 예하 부대로 재편된 제 2 여단은 팔루자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작전을 펼쳤으며 새로운 주둔지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라크 국민이 역사적인 2005 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As part of the 62-year-old ROK-U.S. Alliance, the 2nd Inf. Div. is at the forefront of the Army's shift from a counterinsurgency focus to Unified Land Operations. To accomplish its mission, the Warrior Division is equipped with the most modern and lethal weapons that exist in the world today, to include the newest versions of many of the Army's fighting vehicles, the M1A2 System Enhancement Package Abrams Main Battle Tank and the M2A3 Bradley Infantry Fighting Vehicle. In order to ensure the division's readiness to "Fight Tonight" 2nd Inf. Div. units conduct extensive combined live-fire and lead the Army in the execution of fully integrated, combined live, virtual and constructive training.

62 년 한미 공조의 한 부분으로써, 미 2 사단은 육군의 대 내란 기도 진압활동 초점에서 통합 지상 작전으로의 변화에 선도주자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사단은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현대화되고 치명적인 무기 즉 최신 육군 전투 차량 및 전장에서 주요한 M1A1 아브람 탱크의 향상된 시스템 패키지, M2A3 브래들리 장갑차를 포함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오늘 밤 싸운다'란 사단 준비태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미 2 사단의 예하 부대는 연합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완전히 종합적인 통합된 실제 및 가상 그리고 건설적인 훈련으로 미 육군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The Warrior Division has played a key role in many historical events that have changed the world we live in,” said Maj. Gen. Edward C. Cardon, commander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Today, Soldiers wearing the same patch as those who served proudly on battlefields across the globe stand with our ROK Army partners ready to ‘Fight Tonight’ if called upon in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I could not be prouder of the Soldiers and KATUSAs of this great division; they are a noble testament to every Soldier who has ever worn the ‘Indianhead Patch.’”

미 제 2 보병사단 사단장인 에드워드 C. 카돈 소장은 “전사사단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오늘 여기 세계 각지의 전장에서 자랑스럽게 싸워 왔던 장병들이 달았던 같은 부대 마크를 달고 있는 병사들은 한반도의 방어 임무가 내려지면 한국군 동반자들과 함께 ‘오늘 밤 싸운다’ 란 각오 아래 준비태세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대단한 사단의 장병들과 카투사 병사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인디언헤드 부대마크’를 달아봤던 모든 병사에게 고결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다.